

교회목표

- 1. 천국시민 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2002년도 표어

성령이여 교통케 하소서 (고후13:13)

행동지침

- 1. 내실있는 교회 되어 바른 신앙, 바른 신학, 바른생활을 실천한다.
- 2. 성숙한 교회 되어 이웃과 세계교회를 섬기며 화평과 연합을 도모한다.
- 3. 책임있는 교회 되어 지역사회와 민족 앞에 소금과 빛의 사명을 다한다.

† 발행인 : 이 중 윤 † 발행처 :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210 전화: (02) 558-1106 팩스: (02) 558-2107 www.seoulchurch.or.kr

다음주 헌당을 위한 건축헌금 한다

다음주일(10월 27일) | · || · |||부 예배 시

우리교회는 2000년 12월25일 성탄절에 입당감사 예배를 드린 후 오늘까지 헌당식을 기다리고 있다.

대지 구입에 심혈을 기울인 직후 바로 건축에 들어갔으나 하나님의 은혜로 무리없이 건축을 완공했다. 하지만 부채 정리가 덜 되어 헌당을 미루고 있는 것이다.

오는 27일(주일) I II III 부 예배에서 우리는 뼈를 깎는 심정으로 헌당을 위한 건축헌금을 바치기로 했다. 다윗이 그토록 소원했던 성전을 하나님은 그에게 허락지 않으셨

으나 못나고 허물 많은 우리에게는 이 은혜와 복을 주셨다.

당일 헌금 준비가 안된 성도는 2년내 분납하는 방법도 환영한다. 적금형식을 택할 수도 있고 부동산이나 유가증권을 바치는 것도 환영한다. 옥합을 깨뜨려 주님 발 앞에 부은 여인의 심정으로 서울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폭발될 수 있기를 바란다.

5층 위임목사실 앞에 건축 헌금자 명단이 동판에 새겨져 있다. 아직 이름이 없는 이들은 헌금 봉투에 표시를 하도록 권고한다.

2002 신임 서리집사 교육 및 면담 시작

교회는 지난 10월16일(수) 임시당회를 개최하여 각 교구담당 교역자가 준비한 2003년도 신임 서리집사 추천 자료를 가지고 신임서리 집사 후보를 선발하였다.

이에 따라 교회는 2003년도에 임명받게 되는 신임 서리집사 교육 및 면담일정을 확정하여 우편을 이용한 개별통보를 하는 한편 오늘 본지를 통해 교육 및 면담일정을 공고 하였다.

②임교인으로 흠 없이 3년 이상 경과한 사람 ③각 부서 및 지회의 봉사경력 1년 이상인 자 ④당전 3·8-13 해당자 ⑤신행이 복음에 합당하고 봉사에 모범인 자이다. 이와 별도로 이명해 온 타교회 직분자는 위에 해당하는 자로 본 교회 등록 1년 이상 된 자(2001년 12월31일 등록자)이다. 신임 서리집사 후보들은 아래의 일정을 참고하여 각각 3차로 계획되어진 일정 중 1회씩만 참석하여 교육 및 면담을 받으면 된다.

남선교회 · 대학 · 청년 · 고등부 연합 신앙간증 집회

10월26일(토) 김영길 장로(한동대 총장)을 강사로

남선교회와 대학 청년 고등부가 공동 주최하는 신앙간증 집회가 오는 10월 26일 오후 5시 웨스트민스터 홀에서 개최된다. 강사로 초청되는 김영길 장로(한동대학교 총장)는 NASA 연구원 재직 시 예수를 영접하고 귀국하여 KAIST 교수를 역임하고 창조과학회 설립에 공헌하였고 한동대학교 초대총장으로 취임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으며 전국으로 신앙간증 다니며 한동대학 이야기를 통하여 많은 은혜를 끼친 바 있다.

남선교회 회원을 비롯한 전교인의 참여를 바라고 있으며 저녁식사 및 대학 청년부의 찬양도 준비된다.

성경 통독자 시상

10월 셋째 주가 되는 오늘 찬양예배시간에 지난 9월22일자 순례자에 안내된 대로 성경통독자 시상을 한다. 이번에 성경통독을 마친 성도는 1독-함은희 권사(7교구), 윤금자 권사(2교구), 2독-방계운 권사(2교구), 원복순 권사(2교구)이다.

23일(수요 II부 예배) 레위 합창단 교회방문

미국 로스앤젤레스와 오렌지카운티 근교에 있는 26개 교회에서 초교파적으로 모인 남성합창단인 '레위(단장: 김연도 장로)'가 본국 수제민 돕기에 참여차 이번 모국 방문 연주회를 갖는다. 지휘자(이영만)와 피아니스트(장서경)외 26명의 대원이 우리교회에는 23일(수요 II부 예배)에 방문하여 연주를 갖는다.

서울강남노회 중고등부 연합회 성경퀴즈대회

10월26일(토) 오후 3시 701호

서울강남노회 중고등부 연합회 성경퀴즈대회가 10월26일(토) 오후 3시 701호실에 서 개최된다. 이번 성경 퀴즈대회에는 우리 교회가 속해있는 서울강남노회 소속 전 교회의 중고등부 학생들이 출전하여 퀴즈대회를 진행하게 된다. 우리교회 중고등부 학생들의 많은 참여가 기대된다.

교육일정	면담일정
장소: 602호	장소: 601, 602, 603
1차: 2002년 11월 6일(수) 1부 예배 후	1차: 2002년 11월 13일(수) 1부 예배 후
2차: 2002년 11월 6일(수) 2부 예배 후	2차: 2002년 11월 13일(수) 2부 예배 후
3차: 2002년 11월 10일(주) 찬양예배 후	3차: 2002년 11월 17일(주) 찬양예배 후

1교구 및 14교구 추계 일제심방 10월22일(화)부터

지난주 3,4교구 심방계획에 이어 1교구(교구담당목사: 한상은 목사 교구장: 하여수 장로) 및 14교구(교구담당목사: 이성득 목사 교구장: 오정수 장로)의 추계 심방 계획이 다음의 표와 같이 확정되었다. 교구간사 및 다락방장은 협력하여 모든 교구식구들이 심방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며 특별히 교회출석률이 힘든 가정과 장기결석 가정, 새가족들이 꼭 심방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또한 부득이 심방일정을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 긴급히 교구 담당 목사에게 연락하기 바란다.

1교구 추계심방계획	14교구 추계심방계획
10월25일(금) 1-8	10월 22일(화) 14-9
10월31일(목) 1-11	10월 24일(목) 14-8
11월 1일(금) 1-12	10월 25일(금) 14-10
11월 7일(목) 1-13	10월 29일(화) 14-4
11월 8일(금) 1-14	10월 31일(목) 14-5
11월12일(화) 1-15	11월 7일(목) 14-6
11월14일(목) 1-16	11월 7일(목/밤) 14-1
11월15일(금) 1-17	11월14일(목/밤) 14-2
11월19일(화) 1-6	11월21일(목/밤) 14-3
11월29일(화) 1-9	

금주의 성구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관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의 기적하시게 하는 자들이 너희는 쉬지 말고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게 하라 (사63:6-7)
I have posted watchmen on your walls, O Jerusalem; they will never be silent day or night. You who call on the LORD, give yourselves no rest, and give him no rest till he establishes Jerusalem and makes her the praise of the earth. (Isaiah 62:6-7)

소신지서 강해-호세아

좀 벌레와 사자같이

(호세아 5장 1 - 15절)

본문은 이스라엘의 높고 낮은 모든 사람들 곧 제사장, 민중, 그리고 왕족들에게 임할 심판을 선고할 말씀입니다.

1. 하나님 지식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과 구별된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거룩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비취보면 자신이 얼마나 누추하고 더러운 죄인임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행동 뿐 아니라 생각까지도 아시는 분이므로 모르는 것이 없으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스스로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스스로 일하고 생각할 수 있는 자율적인 존재가 되기를 원하나 타율적인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고,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존재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악을 행하지 않으시는 것은 스스로 원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토해버린 악한 죄인입니다. 하나님은 불변하시어서 어제와 오늘과 내일이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변하는 것은 항상 인간이지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뜨렸고,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했고, 자신의 위치도 스스로 깨뜨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변덕스러운 분으로 만드는 죄를 범했습니다.

2.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물만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어떤 면으로 하나님의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지식대로 살지 못하고 죄를 따라가며 하나님을 무시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자신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막상 어떤 일이 생기면 기도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기 보다 세상의 방법을 찾아다니는 불신앙의 죄를 범합니다. 진실로 우리가 하나님만을 찾고 의지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와 복을 주시셨는데 우리는 너무 자주 하나님을 무시했습니다.

고멜은 남편을 버렸을 뿐 아니라 무시했습니다. 호세아는 거룩한 지식을 고멜로 하여금 기억하도록 했습니다. 호세아는 남편을 버린 고멜에게 아직도 그녀에게 남편이 있고, 그 남편이 그녀를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에브라임은 내가 알고 이스라엘은 내게 숨기지 못하니 에브라임이 이제 내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이 더러워졌느니라"(3절).

에브라임은 유다 지파를 대신하여 불려진 이름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유다가 음행 하였고 더러워진 사실을 알고 계신다고 합니다. 이 말은 곧 고멜에게 하시는 말로 고멜이 남편을 버리고 떠나 음행하고 더러워졌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양 떼와 소 떼를 끌고 여호와의 찾으러 갈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은 이미 그들에게서 떠나셨음이라"(6절).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찾기는 찾았습니다. 그러나 잘못된 대상과 방법으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마음의 중심을 원하시는 것이지 그들이 가져온 양



이중윤 목사

하나님이 좀 벌레와 같이 사자 같이 이스라엘을 치실 때 그들은 돌아와야 합니다. 자기 의의 옷을 입고 죄를 피하려고 애써도 피할 길이 없음을 스스로 알고 그리스도의 피 묻은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서야 할 터인데 계속 하나님께 대적한다면 그 사람의 결과는 타지 않는 지옥 불에 떨어질 멸망자가 될 것입니다.

떼와 소 떼를 원하시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마음에 죄가 가득한 것을 이미 보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죄를 보시고 그들을 떠나셨습니다.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롬 1:23).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영광을 금수와 벌레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고 거기에 절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죄를 지은 손과 더러운 입술을 가지고 양 떼와 소 떼를 끌고 하나님 앞에 갔으나 하나님은 그 제물을 결코 받지 않으셨습니다. 죄를 버리지 않는 한 그들은 하나님을 참으로 찾지 못할 것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롬 3:10-11).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받으실만한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깨끗한 척 해도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 된 모습을 이미 알고 계십니다.

3. 거짓된 종교성

"너희가 기브라에서 빨나팔을 불며 라마에서 나팔을 불며 뻘아웬에서 외치기를 베나민아 네 뒤를 쫓는다 할지어다"(8절).

일계명은 예배의 대상을 바로 아는 것이고, 이계명은 예배의 방법입니다. 이스라엘은 우상을 섬기는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우리가 살아 계신 하나님과 진정한 교제를 하는지 혹은 교회에 몸만 나와 있는지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또한 진실로 회개를 한 사람인지 아닌지 자신은 알고 있습니다.

"에브라임이 자기의 병을 깨달으며 유다가 자기의 상처를 깨달았고 에브라임은 앗수르로 가서 야렘 왕에게 사람을 보내었으나 그가 능히 너희를 고치지 못하겠고 너희 상처를 낫게 하지 못하리라"(13절).

야렘은 크다는 뜻으로 야렘 왕은 대왕(大王)을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앗수르의 대왕에게 가서 도움을 요청했으나 앗수르는 이스라엘을 돕지 못합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은 이방 나라들과 동맹을 맺으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이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라는 찬송을 입으로 부르면서 그대로 믿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가 바로

이방인이요 위선자입니다.

4. 자신에 대한 지식

"에브라임은 내가 알고 이스라엘은 내게 숨기지 못하니"(3절).

우리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이고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선에서 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앓고 일어섬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장로교를 창설한 요한 칼빈은 그의 평생을 "하나님 면전에서(코람 데오)" 살았다고 고백합니다.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니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의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4절).

사람은 마음의 생각대로 행동의 열매가 맺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더럽고 불신앙에 차있는 사람은 그 행위가 경건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이 넘어지고 유다도 그들과 함께 넘어지리라"(5절).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을 제일 싫어하십니다.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은 교만한 죄로 인하여 넘어지고 유다도 그들과 함께 넘어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시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할 시간이고 만나야 할 때입니다.

"에브라임은 사람의 명령 뒤따르기를 좋아하므로 학대를 받고 재판의 압제를 받는도다"(11절).

사람을 숭배하고 높이는 사람은 그 사람으로부터 학대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을 높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고 섬겨야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좀 같으며 유다 족속에게는 썩이는 것 같도다"(12절).

하나님은 왕으로, 목자로, 남편으로 우리에게 계시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좀 벌레로 나타나셨습니다. 좀 벌레는 해롭지 않은 방법으로 우리를 괴롭히고, 잘 나타나지 않는 방법으로 파괴시켜서 옷을 찢고 부패케 하는 벌레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범죄한 사람을 천천히 멸망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사자 같고 유다 족속에게는 젊은 사자 같으니 바로 내가 움켜잡자라 내가 탈취하여 갈지라도 견져낼 자가 없으리라"(14절).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 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15절).

하나님이 좀 벌레와 같이 사자 같이 이스라엘을 치실 때 그들은 돌아와야 합니다. 자기 의의 옷을 입고 죄를 피하려고 애써도 피할 길이 없음을 스스로 알고 그리스도의 피 묻은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서야 할 터인데 계속 하나님께 대적한다면 그 사람의 결과는 타지 않는 지옥 불에 떨어질 멸망자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여러분, 하나님의 징계의 때를 빨리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가정과 교회와 민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위해 새 예배당 헌당하자

성준경 장로(6교구)

어느 날 갑자기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진 듯, 온 세상이 암흑과 같이 캄캄하여지고 진리의 말씀이 끊어져 소망이 없어진 사람들 같이 울며 헤매이던 우리들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불쌍히 여기사 눈물을 닦아주시고 영혼의 상처를 싸매어 주시며 이곳 서울교회에 모이게 하여주셨습니다.

우리가 무엇이란대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처럼 사랑하십니까? 이것이 웬 은혜입니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 무엇을 해드렸습니까? 우리는 이제까지 우리를 위하여 기도했고 우리들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를 위하여 살아왔습니다. 주님을 믿는 신앙조차도 내가 천국 가기 위하여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욕심으로 가득 찬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오직 은혜로 다 들어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이제는 이 아름다운 예배당을 우리의 손으로 온전하게 헌당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는 아무 것도 가진 것이 없는 것 같고 부족한 것만 같았는데 다시 돌아보니 주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풍성한 것을 알지 못했었습니다. 험벗고 굶주리지 않았으며 추위에 떨지도 않았고 자녀들도 성장하였으며 우리도 건강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도 주신 것은 다 우리 것이었고 주님

께 드릴 것은 없었습니다. 내일 쓸 것은 남겨두어야 했고 우리의 자녀들이 쓸 것까지도 비축해야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폭우와 광풍과 모진 눈보라 속에서도 안전하고 따뜻하게 보호하여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보답하지 못했는데 이제 우리에게 이 기회를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손으로 이 예배당을 하나님 아버지께 바쳐서 오고 오는 우리의 후손들로 하여금 이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축복을 받으며 그들이 어려울 때 기도하며 진리의 말씀을 듣게 하옵소서.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막 12:44)

지하철 대치역 일일 명예역장행사 참여 이규정 목사



에게 친절히 인사하기 등 지하철 역무원들의 하루를 경험하는 일과의 내용으로 이루어졌다.

서울 교회는 작년 10월 24일 대치역과 자매결연을 맺은 후, 역 구내전도, 성탄절 트리 설치, 어버이날 꽃달아드리기 행사 등의 여러 가지 선교행사를 가져왔다. 일일 명예역장 행사는 역무원들과 승객들의 불편사항을 경청함으로써 교회와 자매역의 유대를 강화시키고 선교의 터를 넓혀나가기 위해서 마련되었다. 일일역장으로 임명을 받은 이규정 목사님. 대치역에 들어서자 푸근한 인상의 매표원 아저씨를 통해 역무원실내 역장실로 안내되었다. 역장님은 늘 부담 없는 미소로 우리를 맞이하신다. 잠시 역의 현황과 역무원들의 상황에 대해 이야기를 들었다. 역장님을 비롯한 21명의 직원들이 3교대로 근무하고 있는 대치역은 일일 연인원 약 3만 5천명이 이용을 하고 있으며, 그 중 특히 노인손님과 학생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고 한다.

지난 10월 10일, 오전 9시부터 약 2시간 동안 우리 교회와 자매역인 지하철 3호선 대치역에서 일일 명예역장행사가 있었다. 이 행사는 자매교회의 목회자들을 초청하여 일일간의 역무 행정에 참여토록 하여 매표, 개·집표, 승강장 업무감독, 이용고객 안내, 승객 편의시설 및 안전시설 점검, 역무원과의 대담 및 격려, 기초질서 캠페인, 고객

일일역장을 하면서 기억에 남는 것은 직원들의 열악한 근무환경이다. 근무시간 내내 햇빛이 차단된 곳에 머물러야 하기 때문에 시력이 약화되고, 먼지와 오염된 공기에 장시간 노출되어 호흡기 장애환자가 많으며, 소음으로 인한 청각 장애가 많이 일어난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상적인 것은 직원 모두가 음지에서 일하지만 시민들의 가장 빠른 발의 사명을 감당한다는 자부심의 양지를 지향하고 있는 모습이다.

그래서 역장님은 대치역이 다른 역에 비해 깨끗하고 기초질서가 잘 지켜지고 있다고 대치동 주민들을 한껏 자랑하신다. 질서 캠페인 어깨띠를 두르고 역구내를 돌아보며 우리 시민들을 위해 지하에서 성실히 봉사하시는 분들의 노고를 새삼 느끼며, 수많은 사람들에게 변함없이 미소로 봉사하시는 푸근한 역무원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이 솟아났다.

앞으로 지역주민의 대부분이 이용하는 지하철을 통한 전도활동이 더욱 활발히 진행되기를 기도한다.



장한 어머니 -눈물과 기도의 어머니

화 권사는 네 아들 모두를 헌신적인 사랑과 눈물의 기도로 뒷바라지하여 당당한 사회인으로 성장시켜 장애인 가정의 모범이 되었다.

어머니의 기도로 장남-강주해 목사(50세)는 현재 미국 농아인 교회 목사로, 삼남-강철해 전도사(45세)는 미국 남가주농아인교회 전도사로, 사남-강대해 집사는 미국 치기공회사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아들 중 유일한 건청인인 차남-강국해 집사(47세)는 미국 컴퓨터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다. 네 명의 아들 모두가 훌륭하게 성장하여 당당한 사회인이 된 것이다.

또한 전인화 권사는 일찍이 대한민국 내에서 장애인 자녀의 미래는 부모의 뒷바라지가 필수적임을 깨달아 장애인 자녀를 쉬쉬하던 1980년도에 '한국 청각장애인 부모회를 설립하여 부모들의 의식을 일깨우고 초대회장도 역임하셨

지난 10월16일(수) 10:30분 올림픽 공원 역도 경기장에서 열린 제 18회 전국 장애인 부모대회에서 작은 경사가 있었다. 바로 우리교회의 전인화 권사(살림권사회, 2교구)가 장한 어머니 상을 수상한 것이다. 전인화 권사는 남편 퇴신 강중심 집사와 슬하에 4명의 아들을 두고 계신데 4명의 아들 중 3명이 어려서 약을 잘못 복용하고 또한 심한 고열 등으로 중도에 청력을 잃은 청각장애인이다.

그러나 장애인에 대한 편견이 극심했던 그 시절에 전인

다.

아들들 중 장남 강주해 목사는 한국 최초의 농아인 목사로 수화편찬위원으로 수화연구에도 기여하는 한편 '농아인 그는 누구인가'라는 책을 펴내기도 하였다.

이렇게 아들들을 훌륭하게 성장시키기 위해 엄청난게 드는 교육비를 마련하고자 전인화 권사는 동대문 시장에서 밤낮없이 이척스레 일을 하며 뒷바라지를 하였다.

수 십 년의 세월이 지나 고회가 넘어서야 오랜 세월동안 남들 앞에서 드러내놓지도 못하고 혼자서 흘린 눈물의 기도를 치하하는 작은 상을 수상하셨다. 비록 권사님이 받으신 것은 그동안의 노고에 비해 너무나 작은 상장과 기념패에 불과하나 하나님께서는 권사님의 수고를 기쁘게 받으시고 천국에서 큰 상급으로 갚아주시리라.

유태서(편집부)

교의 산실이 되는 교회를 세워 달라는 간절한 소망의 기도! 이제는 베풀어주시는 은혜에 감사하며 받은 사명 감당하기 위하여 더욱 기도하기 위함이다.

또 하나의 교회가 아닌 이웃교회를 섬기며 성장 일변도의 한국교회를 이대로는 안 된다는 믿음으로, 교회 갱신을 부르짖고, 민족교회로, 세계 속의 교회로 발돋움하고 있다. 이 모든 일들이 기도가 아니면 이루어 질 수 없기에 이 시기에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다. 국가와 민족, 교회와 가정, 개인의 영적 신앙 성숙을 위하여 자정이 넘도록 두 손을 붙잡고 주님께 매달린 우리의 모습은, 마치 죽음 앞에 선 스테반 집사와 같은 간절한 기도였으며, 두려움과 떨림 속에 밝고 섬에서 주님을 만난 사랑의 사도 요한의 심정과 같았다. 충성하지 못하여 회개의 눈물과 함께 심판 주 주님 앞

에서 공물을 덧입기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였다.

이제 더욱 뜨거운 기도와 충성으로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길 다시 한번 다짐하면서 좋은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그 영광을 돌린다.

-다연 이경자 제5회 개인전-

80년대 이후 수묵담채화에 정진해 온 다연 이경자 성도는 국전에 입선한 50년후반부터 수묵을 다루었으므로 무려 20년 이상의 세월을 그 특유의 수묵담채화에 몰입해 왔다. 그가 이순을 훨씬 넘긴 지금 생애 5회 개인전을 연다.

- 일자 2002년 10월23일 ~10월 29일
- 장소: 인사아트센터



'기도로 세운 성전, 헌당하여 복음의 빛을 비추자!' 는 표어 아래 2002 사망자 대회가 진행중이다. 안수집사들로 조직된 스테반회에서 금년도 피택 집사들과 함께 부부 동반하여 위임목사님과 김운호 목사님을 모시고 양수리 수양관에서 기도회를 가졌다.

우리 교회를 세우기 전 50일 동안 눈물로 기도하며, 발이 붓도록 전도한 그 때를 기억하며, 민족 복음화와 세계선

제 22학기 목회자 신학 세미나 대선 후보 초청 강연

신앙과 애국 - 노무현 후보편



지난 10월14일 제22학기 목회자세미나에서 노무현 대선후보를 초청, '신앙과 애국'을 주제로 60분간 강연을 듣고 30분간의 질의 응답시간을 가졌다.

다음은 정리 요약한 내용이다.

이 자리를 마련하신 한국교회강연연구원과 전국의 목회자에게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79년에 변호사를 개업했고, 부산 YMCA에서 시민공개실을 열었을 때 제가 법률상담을 맡았습니다. 또 YMCA에서 노동자들을 도와주는 프로그램을 맡아서 했고, 주로 목회자들이 위원이신 인권위원회에서 전문 위원 자격으로 부산 목회자와 함께 인권운동에 참여했으며 부산에서 최성국 목사님이 민주화 운동을 이끄실 때 열심히 동참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YMCA 이사직을 맡기도 했습니다.

2000년 부산 선거에 패배하고 나서 저는 진정하기 어려운 마음으로 링컨 연설집을 꺼내들었습니다. 링컨이 두 번째로 대통령에 취임하면서 한 연설이었는데 이때는 40일 후면 남북전쟁이 끝나는 시점이었는데 여기서 링컨은 남과 북을 선과 악으로 가르치지 않고 승리와 패배라는 단어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어떻게 앞으로 미국이 하나가 될 것인가를 말했습니다. 그는 적에 대한 응징을 위한 기도가 아닌 승자로써 저지른 과오와 죄를 하나님께 어떻게 용서받아야 할지를 말하는 깊은 자기 성찰의 단계에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노예해방문제를 둘러싸고 두 나라로 분열 될 수 있는 위기에서 링컨 대통령은 용서할 수 없는 남부세력을 응징하기 보다 화해를 의했습니다. 링컨은 과연 독실한 기독교 신자입니다. 기독교 정신은 링컨을 세계적인 지도자로 만든 정신적 토양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우리 국민들은 강력한 지도자를 원하고 있습니다. 강력한 지도력은 겸손과 민주적인 지도자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권력이 강력한 지도자가 아닌 국민의 마음 속에 살아있고 국민들과 공감하며 국민들의 지지 속에서 지도자가 나와야 합니다.

우리는 분단국가에서 살고 있습니다. 언제 전쟁이 날지 모르는 위험 속에서 가슴을 조였던 일이 한 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지도자의 말 한 마디가 국민들을 불안하게 할 수도 있고 안심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여러 가지 역경을 이기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지금은 한국이 어느 방향으로 갈 것인지 중대한 결정을 해야 하는 시점입니다.

우리 나라의 과제는 경제의 안정과 부정부패의 척결과 정치개혁과 국민통합입니다. 우리 나라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우선 한국이 새로운 동북아를 주도(동북아 전략)해야 하며 중앙과 지방의 균형 잡힌 발전(지방화 전략)을 해야 하며 사회 문화의 체도와 의식의 근본적인 개혁(한국사회 체질 개조 전략)이 있어야 합니다. 개혁은 시끄럽고 고통을 수반합니다. 그러나 피할 수 없는 우리 민족의 시대정신이고 운명입니다. 다만 개혁은 국민과 합의하여 용의주도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질문 1 - 노 후보의 강연 중에 지도자는 보편적 가치와 질서 위에 세워져야 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어디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응답 - 우리 사회를 앞장서서 이끌어오신 분들의 주장한 내용 중에 중요한 부분들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오랫동안 바뀌지 않고 내려온 선인들의 가르침이나 인류의 축적된 경험 속에서 정착된 원리들을 보편적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질문 2 - 이것은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한국기독교교역자연맹, 한국교회개신연구원의 공동 질문입니다. 지금 우리 나라는 청소년 문화가 심각합니다. 노 후보가 대통령이 되신다면 종교교육과 연결시켜 청소년들에게 절대적 가치관을 심어주는 방안을 제시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응답 - 청소년은 나라의 미래입니다. 지금 일각에서는 사회의 의식구조를 개혁해야 한다는 논의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옳은 말입니다. 의식구조의 개혁이 있어야 사회 문화와 제도를 개혁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가르침을 받기 보다 보고 듣는 현상을 신뢰합니다. 역사적 경험에서 민족의 문화와 관습이 형성됩니다.

청소년 교육은 논리로 가르치는 것보다 어떤 의미에서 신앙교육이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기독교 교육의 정책화는 종교간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확신 있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 다만 사립학교에서 기독교교육에 관해서 자유를 좀더 폭넓게 인정하는 것이 좋으리라 생각합니다.

질문 3 - 우리 나라에 기독교학교가 355개가 있고 기독교학교가 한국교육에 공헌한 것이 지대하다는 것은 자타가 공인하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개정된 제 7차 교육과정에서 종교과목을 제외시키고 이를 복수 선택과목으로 규정함으로써 사립학교 건학 이념이 훼손되었습니다. 기독교교단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아주 신중하게 대처하고 합니다. 현재 민주당에서 제출한 사학관련법은 사립학교 교원의 임명권을 학교장에 위임하고 사립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기구화 교사회, 교수회, 학부모회의 법정기구화가 그 골자입니다. 공립학교장에게도 주지 않는 인사권을 사립학교장에게 준다는 것은 인사의 권한을 교사들에게 준다는 것으로 이것은 일부 사학의 비리를 척결한다는 미명하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사학을 말살하려는 것입니다. 귀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응답 - 제가 말하는 개혁의 일관적인 원칙은 공정성과 투명성입니다. 최대한 권한을 나누어 자율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을 개혁의 기본 원칙으로 생각합니다. 이것은 행정이나 경제나 교육에도 적용됩니다. 저는 교육의 교과과정에 대한 자율권도 높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앙의 교육관료들의 많은 권한은 지방자치단체로 내려보내고 그 권한조차도 단위학교로 내려보내야 합니다. 여기서 부딪치게 되는 갈등은 단위학교로 내려온 권위를 누가 가지는 문제로 인할 것입니다. 선진국에서는 단위학교의 권한을 교사와 재단과 학부모와 지역사회가 합의하여 합

서울 주간기도

●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

- 2002 사명자 대회를 위하여
- 목회자세미나 · 서울성경대학 · 주부대학 · 살롬경로대학을 위하여
- 병상에 있는 환자들, 입시생, 실직자, 소외된 자들을 위하여
- 연말 대통령 선거를 위하여

예배 및 집회

구분	시간
주 일 예배	I 부 오전 9시
	II 부 오전 11시 20분
	III부 오후 2시
찬 양 예배	주일 오후 5시
수 요 예배	I 부 오전 11시
	II부 오후 7시
금 요 기도회	오후 9시 30분
새벽 기도회	매일 새벽 5시 30분



리적으로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가 확일적으로 이루어질 것인지, 아니면 공립이 먼저 시행하고 후에 사립이 자율적으로 채택하게 할 것인지 결론은 아직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자율의 방향으로 풀어 가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질문 4 - 과거 교단을 황폐화시켰던 전교조에 대해서 현 정부는 민주화투사로 인정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십니까?

응답 - 저는 전교조의 합법화를 계속해서 지지해왔습니다. 전세계적으로 전교조는 합법적인 단체입니다. 전교조는 넓게 보면 교사의 자유에 속하고 또 노동조합의 자유에 속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우리는 이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전교조의 모든 것이 다 옳다는 것은 아니지만 옳지 않은 것은 옳지 않은 것으로 논쟁을 통해서 처리해야 하는 것이지 전교조의 적법성 자체는 인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질문 5 - 지금 누군가 노 후보에게 예수를 믿자고 하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응답 - 저는 개인적으로 카톨릭 신자입니다. 그러나 성당에 잘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지 지금 종교를 선택하고, 교회를 나가자니 저 자신도 표를 의식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만일 제가 대통령이 된다면 임기를 마치고 나서 종교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정리 - 허숙 사진 - 정동호 (편집부)

동정

- 이종윤 목사는 20일(주)신원교회위임식24일(목)외무부직장 선교회에서 각각설교한다. 25일(금) 대전 신학대학 종교 개혁 기념 특강을 한다
- 이사 : 천경화집사(11교구) 송파구 가락2동 가락한라A2-205
· 검침범 집사 이은희 집사 용인 수지 성북동726성동마을 LG 빌리지 3차 304-904
- 이태훈 전도사(고등부 지도)는 10월7일 미국 장로교(PCA) 수도노회에서 강도사 인허를 받았다.

☞ 금주의 식사제공 : 한촌일 집사 가정 (음편 장례를 은혜중에 미치고)

이종윤 목사 방송설교

- 기독교방송 (HLKY 98.1MHz)
성서강해 화요일 오전 5시 35분 ~ 6시
- 극동방송 (HLKX 1188KHz)
생명은 빛으로 금요일 오전 8시 10분 ~ 8시40분
- 인터넷방송 (· C3 TV - <http://c3tv.co.kr>
· 호산나넷 - <http://hosanna.tv>)

